

AiBiotics

장내미생물과
인간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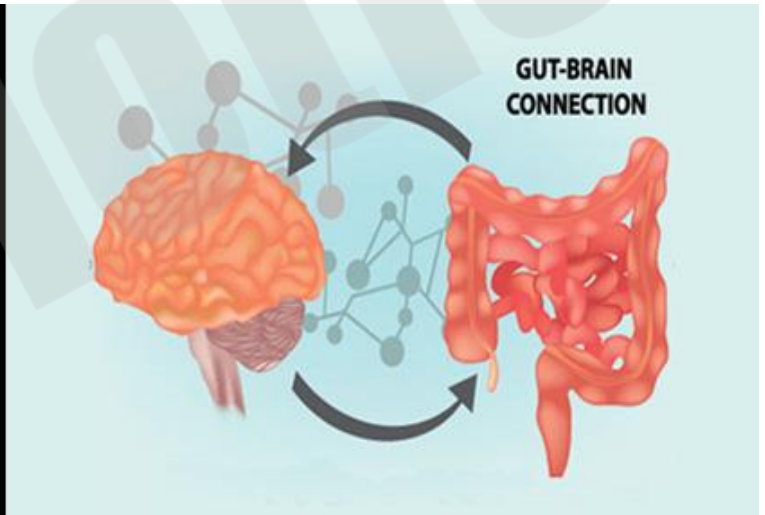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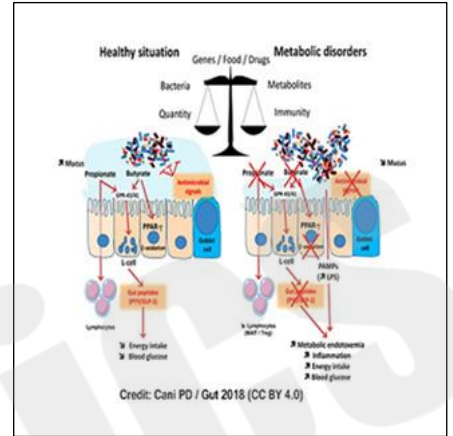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공존

인체에는 인간의 체세포보다도 많은 약 50 조 개의 미생물(박테리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미생물의 총 무게는 1.5~2 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몸속에 미생물을 다 모으면 2L 생수통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양입니다. 대변을 말리면 건조물 중 30% 이상이 미생물의 사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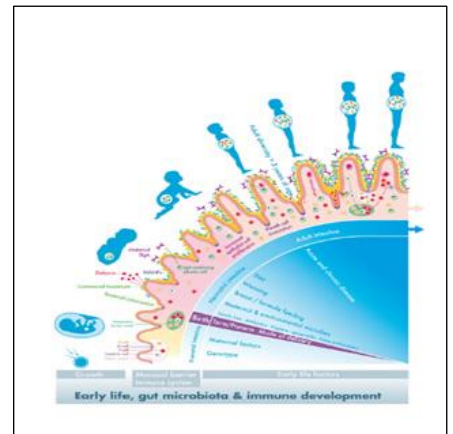
인체에는 인간의 체세포보다도 많은 약 50 조 개의 미생물(박테리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미생물의 총 무게는 1.5~2 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몸속에 미생물을 다 모으면 2L 생수통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양입니다. 대변을 말리면 건조물 중 30% 이상이 미생물의 사체에 해당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들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불안감을 주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의 자궁에 머물던 시절에 태아는 무균 상태로 미생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라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엄마로부터 혹은 환경으로 부터 장 미생물을 이식 받고 죽는 날까지 미생물들과 함께 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 받아 몸을 만들고(1st Genom), Home(부모, 형제, 식구, 음식)에서 두번째 유전자인 미생물(2nd Genom)을 전달 받습니다. 건강과 체질은 바로 이 두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 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물려 받은 유전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인자이지만 2nd Genom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장이 성숙되기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두번째 유전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살 버릇을 어른이 되어 고친 들 장 미생물은 쉽게 변화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전에 튼튼한 장을 만들어 주는일은 부모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좋은 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아이 장에 어떤 미생물이 많고 적은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균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그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맞는 분석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좋다고 우리아기한테 꼭 좋으란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분석과 처방이 뒤따라야 합니다.

Aibiotics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결과를 종합하여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내 미생물 분석 service를 제공 합니다.

AiBiotics